
DAIL

COMMUNITY

탄자니아의 새로운 꿈





다일공동체 30주년, 역경의 열매로

다일공동체 설립 30주년을 맞는 2018년은 한 해 내내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힘이 되어주었던 분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한 분 한 분 그려보고,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마다 곁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공동체 가족들과 변함없는 사랑의 섬김을 이어온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30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해 초까지 국민일보에 연재하였던 역경의 열매를 쓰면서 지난 30년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면만 끓여먹으며 지냈던 시간들, 쥐들과 더불어 살아야 했던 588의 척박한 삶의 자리 청량리 뒷골목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라며 주먹질하던 조폭들에게 얻어맞고 이십일 이상 몸져누웠던 날들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갑니다.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 역 광장에 쓰러져있던 함경도 할아버지 한 분에게 대접하였던 한 그릇의 밥이 지난해 5월 2일 오병이어의 날에 천만 그릇을 나누게 되었는데 청량리에서 시작된 다일공동체가 10개국 18개 회원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역경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창립30주년을 맞는 올 해는 특별히 처참한 가난의 굴레 속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탄자니아 다일비전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다일의 자랑스러운 박상원 홍보대사님이 앞장서서 모금 활동을 펼쳐서 이루어가는 사랑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 신두팔축에 다일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인드라 워터라는 큰 강가 위에 자리 잡은 물가에 세워지는 고아원을 그동안 사랑으로 함께 했던 분들과 더불어 데일리다일의 장기수이사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여 다일고아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민촌에 소금과 빛이 되어 예수사랑을 증거하는 역경의 열매 주인공들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지난 30년동안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응원해주시고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으로 인해서 빛나는 역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일의 사역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작은형제

희망드 올림

CONTENTS

Vol. 195

02	30주년 특집 I 탄자니아의 새로운 꿈
04	30주년 특집 II 우리 농산물로 우리 이웃을 살립니다
06	함께하는 길 따뜻한 감성으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08	나누고 싶은 이야기 광주은행의 릴레이 사랑 나눔
10	분원소식
10	중국
12	캄보디아
14	베트남
16	필리핀
18	네팔
20	우간다
22	탄자니아
24	미국
28	밥퍼나눔운동본부
30	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33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6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후원 명단
38	후원 안내
39	후원 신청서
40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cover story

나쿠펜다 NAKU PENDA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에서 만난 이 친구와의 만남에 기쁨이 넘쳤었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들고서 저에게 전해준 작은 그림은 탄자니아 밥퍼에서 진지를 대접하던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 방문한 탄자니아에서 만난 이 친구가 이렇게 성장하여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이 작은 친구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다솜, 박찬미, 이순선 디자인·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8년 3월 발행처 | 다일복지재단 주소 |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탄자니아의 새로운 꿈

1인당 총 국민소득 약 1,000 달러, UN이 분류하는 최빈국중 하나인 탄자니아. 2012년 이곳에 다일공동체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밥퍼를 시작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2012년 8월,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INGO 승인을 받아 2013년 1월, 다레살렘 쿤두치 채석장 마을에서 밥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땀별 아래에서, 때로는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컨테이너 두 동과 천막 아래 밥퍼 나눔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뒤, '한 켜치고 나눔운동'을 통해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드디어 2014년 1월, 밥퍼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밥퍼 센터를 통해 조금 더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밥퍼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탄자니아의 공교육은 무료지만 이에 반해 교복, 학용품, 학교기부금 등 교육비 이외의 것들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의 편입학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가운데, 탄자니아 다일호프클래스가 2014년 8월, 밥퍼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기 다일호프클래스 12명의 아이들은 다음해 1월, 모두 무사히 정규과정에 입학하였고 올해 2월 1일부터는 40명의 아이들이 다섯 번째 호프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자니아는 새로운 꿈을 꿈꿉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교육시설만으로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호프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는 밥퍼 센터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의 상황과 수준에 따른 맞춤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집이 좁고 어두운 데다 전기마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 밖의 맨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합니다. 쿤두치 마을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프클래스를 넘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추가적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 '탄자니아 다일호프스쿨'을 꿈꿉니다. 다일호프스쿨은 아이들이 언제든 공부할 수 있는 교실과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방과 후 수업들과 직업훈련, 더 나아가 일자리가 없는 여성들을 위한 미성교실과 글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학교로까지 발전되어 쿤두치 마을에 작은 변화들을 조금씩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탄자니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해 주고 계시지만 아직은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할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더욱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쿤두치 마을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탄자니아 호프스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의 새로운 꿈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문의 02-2212-8004





① NS홈쇼핑 도상철 대표이사

NS홈쇼핑 인터뷰

우리 농산물로 우리 이웃을 살립니다

NS홈쇼핑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NS홈쇼핑은 우리 농수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식품전문 홈쇼핑으로 2001년 탄생했습니다. 우리농수축산물을 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면 부가가치 창출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우리 농가에는 판로가 확보됩니다. 농수축산물 생물의 신선도는 지킬 수 있는 기한이 짧지만, 식품으로 만들어 가열하고 포장하면 유통기한도 늘려 안정적인 재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더해 NS홈쇼핑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소비자', '협력사'라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밥퍼에 무려 쌀 15톤을 기부해 주셨는데요, 이 쌀에는 남다

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NS홈쇼핑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촉진 행사 '쌀 1kg의 기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 1kg의 기적'은 '농업인의 날' 하루 동안 NS홈쇼핑 TV를 통해 주문된 1건당 1kg의 쌀을 적립하고 모아진 쌀은 어려운 이웃에 기부합니다.

그 중 다일 밥퍼에 절반 분량인 15톤 가량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한 행사지만 쌀 소비가 늘어나 우리 농가에는 힘이 되고, 쌀 기부를 통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에는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NS홈쇼핑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NS홈쇼핑의 자량은 '품질관리력'으로 얻은 '고객신뢰'입니다. NS홈쇼핑은 소비자가 '식품이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부터 식품 상품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오가닉', '웰빙' 등 식품을 대하는 가치 기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만족을 위해 품질관리력을 키워 왔습니다. 중소기업이 협력사의 대부분으로 대기업에 비해 투자가 부족할 수 있는 품질관리에 NS홈쇼핑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NS홈쇼핑은 업계 유일하게 식품안전연구소를 보유할 만큼 '품질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홈쇼핑으로 성장했습니다. 탄탄한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현장방문을 통한 꼼꼼한 품질관리 실행 능력으로 NS홈쇼핑은 업계에서 소비자 재구매율 가장 높으며, 반품률은 가장 낮은 소비자 만족 1위 기업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나눔과 기부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NS홈쇼핑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NS홈쇼핑은 '삶의 가치 창출과 행복나눔'이라는 사명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장해온 건실한 기업입니다.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하는 NS홈쇼핑은 늘 기부금이나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과 함께 자원봉사에서 얻는 보람과 긍지를 공유하기 위해 자원봉사와 함께 기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 하는 임직원의 '보람'과 '감동'은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에 처음 참여하는 임직원은 있어도 한번만 참여하는 임직원은 없습니다. NS홈쇼핑이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쌀을 나르고 있는 NS홈쇼핑 직원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실천해야 다음에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봉사도 마찬가지, 기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찾기 힘들지만 한번 느껴 본 사람은 계속 참여 하고 싶어질 겁니다.

NS홈쇼핑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알려주세요.

NS홈쇼핑은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신뢰의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답변자: NS홈쇼핑 사회공헌위원장 이민기 전무



③ 쌀 전달을 마친 NS홈쇼핑 임직원들



① 그레이스벨 단체 밥퍼봉사

그레이스벨 인터뷰

따뜻한 감성으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레이스벨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씀을 담아 전하는 크리스천 감성 디자인문구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소녀의 이야기가 담긴 '헬로제인', 24시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예수님을 표현한 '헬로든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사랑, 찬양, 감사의 마음이 담긴 '플라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레이스벨 패키징'의 브랜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디자인 문구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레이스벨이 탄생하기 전에는 한국의 대기업(동원F&B, CJ, KTF등)의 퀄리티있는 광고디자인을 진행했던 디자인 회

사였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인해야 할 사명감을 갖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컸고,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과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던 터라 10년 전의 낙후된 기독교 디자인 환경을 마주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민감한 기독교 청년들의 디자인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디자인 문구로도 충분히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크리스천 디자인 문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그레이스벨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들을 겪으셨나요?

처음에 크리스천 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대형 서점(문구 팬시점)에 그레이스벨 제품을 입점 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형 서점(문구 팬시점)에서 "그레이스벨 제품의 디자인에서 말씀을 빼면 입점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벨의 제품에서 말씀을 빼면 그레이스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형 서점(문구 팬시점)에서 그레이스벨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력의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일공동체와의 협업으로 2018년 달력을 만들게 되면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크리스천 청년들이 구매하는 헬로제인 캘린더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게 된다면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의 마음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일공동체와 동역하는 마음으로 달력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밥퍼 봉사도 오시고 후원금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벨은 '그레이스벨 프렌즈'라는 서포터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벨 프렌즈'는 그레이스벨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의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그레이스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홍보하는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그레이스벨 전 임직원과 프렌즈가 함께 모여 송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하여 고민하던 중, 송년회를 대신해서 모두 함께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밥퍼 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밥퍼 봉사 후 느꼈던 점을 나눠주세요.

밥퍼 봉사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봉사라고 느꼈습니다. 매일 매일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봉사를 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다일공동체 밥퍼 봉사의 힘인 것 같았습니다.

그레이스벨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레이스벨의 제품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분들과 믿음을 잠시 떠난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벨의 제품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일복지재단과 밥퍼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 헬로제인 캘린더의 협업과 밥퍼 봉사를 진행하며 다일공동체와 함께 연말에 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다일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밥 굶는 이 없이 살아가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답변자: 김경은 이사



② 배식중인 그레이스벨 임직원들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

광주은행의 릴레이 사랑 나눔

광주은행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8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고객의 가슴속에 깊이 들어가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중심의 은행, 직원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행복한 은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봉사하러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밥퍼에 봉사를 신청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만큼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부터 광주, 전남, 수도권 배식봉사를 릴레이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나눔이나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요?

광주은행은 지역의 아름다운 동반자로서 지역발전, 사회복지, 환경보전, 인재육성,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좀 더 다양한 계층에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은행 업무와 밥퍼 봉사 중 어떤 것이 더 힘든 것 같으세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으로 밥퍼 봉사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소득격차와 물가의 차이만큼 무료 급식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지방과 많이 달라 봉사활동에 임하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광주은행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 임직원 1,700명의 시중은행보다는 몸집은 많이 작지만 은행 업무든 봉사활동이든 하나로 똘똘 뭉치는 情感(정감)과 단결력이 강점입니다.

밥퍼 봉사 이후 느끼신 점을 나눠주세요.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누면 커질 수 있다는 것!
그 나눔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
국가가 다 해주지는 못하는 것을 해주는 밥퍼 봉사!



아직 밥퍼 봉사를 와보지 못하신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팔, 두 다리만 있다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 자동으로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밥퍼와 다일복지재단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사를 해보지 않으면 그냥 "고생하시네요..." 그런 말을 남길 텐데, 봉사를 하고 나면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답변자: 광주은행 사회공헌실 이창희 차장

단체 자원봉사 문의 02-2214-0365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중국다일공동체 애심회

중국의 겨울방학과 춘절이 다가오며 중다일 애심회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늦은 겨울방학이 시작된 조선이가 기숙사생활을 마치고 애심회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다일 애심회 601호는 요짱과 왕하이타오 둘이서 생활하고 나머지 602호는 사무실로만 이용하며 조금 허전했는데 왕조선이 돌아와 생활하고 곧 심양의 전지향도 돌아올 예정이라 중다일 애심회가 혼 혼합니다. 춘절을 앞두고 미리 휴가를 다녀간 김성춘도 일주일 간 잘 다녀갔습니다. 비록 다일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외지의 큰 아이들이 돌아와 편히 쉴곳이 있음에, 언제든지 돌아올 곳이 있음에 그리고 맞아주는 가족들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왕조선

훈천시 복리원 지원 및 1:1 아동결연 확장

현재 복리원에 있는 14명의 다일어린이집 동생들은 정서지원을 중심으로 1:1 아동결연지원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훈춘 각 경로원의 쌀나눔 행사에 협력하며 농촌지역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계셔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있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일어린이집 아동으로 제한되었던 1:1 아동결연을 훈춘 각 지역의 어려운 아동지원으로 확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조손가정등 시야를 넓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곳들로 현황 조사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 준비 중인 요이판



요이판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님마저 돌아가시며 7살에 중다일 가족이 된 요이판은 현재 훈춘 직업고등학교 3학생으로 마지막 한학기를 남겨두고 공부 중입니다. 한족이지만 한국어에 능통해서 현재 한국 다일공동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으로 진학하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꿈을 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4월에 유학을 위한 첫 단계인 한국어 토픽시험 등기를 마치고 열심히 토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학생들은 한국 입국 절차가 매우 쉽지만 요이판처럼 한족 학생들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요이판 명의의 집이 있는 것도,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서줄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요이판이 한국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준비중입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① 한국의 큰 아버지 최일도 목사님과 만나 어린시절 추억을 얘기하는 요이판

② 최일도 큰 아버지와 김연수 큰 어머니와 함께 즐거워하는 요이판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어꾼 뿌레야 예수! 온 누리에 사랑이 내리는 성탄!



❶ 크리스마스 행사 현장

'뿌레야 뜨롱 러어 나(좋은신 하나님)'

'뿌레야 뜨롱 러어 나(좋은신 하나님)'

'뿌레야 뜨롱 러어 나 뜨롱 러어 나 덜 크놈'

(좋은신 하나님, 참 좋은신 나의 하나님)

샬롬!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12월 24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끄라움 센터에서는 프놈끄라움, 스룩부억, 오마누억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예배를 기쁨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프놈끄라움 센터에서 차량으로도 각각 30분, 1시간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스룩부억과 오마누억의 아이들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면 한 자리에 자주 모이기 힘든 만큼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반가운 마음으로 작은 손을 꼭 맞잡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각 지역의 아이들은 저마다 울동과 찬양 등을 준비하여 그동안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한 팀, 한 팀 준비된 공연이 진행될 때마다 아이들은 체육관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직원들도 성탄 기념 깜짝 공연을 준비하여 선보였는데 아이들은 늘 '넥끄루(여자 선생님), 로끄루(남자 선생님)'라고 부르며 따르던 선생님들이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고 '까르르 까르르' 웃음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축하공연과 더불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복되고 기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이들 모두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큰 외침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레 마련한 간식 꾸러미와 빵을 선물로 함께 나누며,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곧 모두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성탄 예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국과 같이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성탄은 아니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가득 머금은 아이들의 예쁜 마음들이 모여 온 누리에 사랑이 내리는 따뜻한 성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현재 꿈퍼 앞마당에 교육과 예배를 위한 공간을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2층 꿈퍼 생활공간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함께 부탁드립니다! 어꾼 뿌레야 예수!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②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스텝 단체사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이·취임식

사랑과 눈물의 수고를 기억하고,
새로운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며,

2018년 2월 14일,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원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씨엠립 주 정부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및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역을 섬기고 있는 각 NGO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일도 이사장님의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이임 원장님이신 김형길 원장님의 감사 인사와, 취임 원장 석미자 원장님의 선서, 그리고 새로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지에서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위해 후원의 손길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들에 감사패를 전달해드리는 순서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서 12년간 사역을 이어오신 석미자 취임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으신 이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섬기겠다' 는 포부로 취임

식의 소감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눈물의 수고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정성껏 섬겨주신 김형길 원장님께 감사와 수고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뛰는 가슴으로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석미자 원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힘껏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꾼 브레야 예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새로운 원장님과 가족들을 통해 맺어질 기적의 열매들을 위해 함께 뜨거운 기도로 격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③ 캄보디아 석미자원장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CHÚC MỪNG NĂM MỚI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세계에 계신 후원자님 그리고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함께 할 수 없어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밥퍼 식구들을 위해 한결같이 이웃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는 VEGAS회사와 함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VEGAS회사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이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밥퍼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니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밥퍼에서 봉사 및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셨던 VEGAS는 2017년 밥퍼의 장소 이전에 따라 수혜자의 상황에 맞게 배식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한 해 동안 부득불 밥퍼 봉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밥퍼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2018년도 부터는 매월 밥퍼 봉사 활동에 참여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밥퍼를 찾는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 110명을 대상으로 쌀과 과자, 각종 조미료(소금, 간장, 미원, 설탕..)를 준비하여 전달해 주셨습니다. 손에 들기에도 버거운 만큼 넘치는 선물을 받은 밥퍼 식구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고국의 가족을 생각하며 베트남 다일공동체와 함께 이웃을 섬겨주신 VEGAS임직원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주어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길 함께 기도



① VEGAS에서 준비해주신 구정선물

하겠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가 더욱 주변을 돌아보고 받은 사랑을 넘치도록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HÚC MỪNG NĂM MỚI"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② VEGAS직원 선물전달 ③ VEGAS, 면흥적십자, 베트남 다일공동체 단체사진



필리핀 PHILIPPINES

이명현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살라맛 뽀 헤수스~~"

"살라맛 뽀 헤수스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난 1월 19일에 필리핀 다일공동체 사명실현지로 다시 날아온 이명현, 세부에 서 인사 올립니다. 까만씨 다일커뮤니티센터를 아름답게 건축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귀국한 전임 류주형 원장님에게 감사 와 치하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의 에머럴드 빛 바다와 맑고 파란 하늘은 전세계적 으로도 으뜸으로 여길 만큼 아름답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가히 환상적으로 빼어난 풍광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 세부 에 필리핀 까만씨 다일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다일 센터도 아름다운지 궁금하시다구요?

그럼요,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매일 굶 는 빵 하나 쥬스 한 잔에도 아이들은 해맑은 미소로 "살라맛 뽀 헤수스~"로 종달새처럼 노래하고, 후원품으로 들어온 헌 옷을 나눠주어도 너무 너무 좋아하면서 "I am happy~"를 연발하며 나비처럼 춤추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 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자들로부터 밀리고 밀려서 머리 둘 곳 한 뼘 땅조차 없이 바닷물 위에 열기설기 엉성한 가건물들을 짓고 그 위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온갖 생활 오폐수를 그대로 직하하는 바람에 까만씨의 바닷물은 까맣게 오염되었지만, 그래도 다일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맑고 밝고 예쁩니다. 역시 아이들이 꽃이고 희 망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겉으로는 저도 그들과 똑 같 이 환하게 웃고 있지만, 제 속마음은 쓰리고 아릴 때가 더 많습 니다. 빵 한 조각씩 나누면서도 어서 어서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셋팅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었으면..., 헌 옷을 나눠주면서도 속으로는 미안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몸에 꼭 맞는 예쁜 새 옷을 입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 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세지와 함께 계란과 예쁜 티셔츠를 새 옷으로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면 이 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당당하게 "I am special~"을 외치며 건강한 세계인으로 살아 갈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아이들과 함께 까만씨의 까만 바닷물도 파란 바다로 회복될 수 있다는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후원천사님들께서 이 아름다운 선물에 동참해주시지 않으 시겠어요?

후원천사님들이 선택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선물들

- 일대일 아동결연 후원: 3만원 ◦
- 빵퍼 후원: 5만원 ◦
- 밥퍼 후원: 10만원 ◦
- 부활절 계란 후원: 30만원 ◦
- 부활절 티셔츠 후원: 100만원 ◦
- 밥퍼 셋팅 후원: 300만원 ◦

필리핀 다일공동체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81 (다일복지재단)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16-517-589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① 필리핀 전임 류주형 원장과 박설희 부원장, 후임 이명현원장과 에드가 목사 부부



2

2 다일커뮤니티 센터에 잇대어 새롭게 건설한^^ 대나무 다리



네팔 NEPAL

부번 팀시나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① 송실대 임팩트 34기팀 ② 송실대팀과 활동하며 즐거워 하는 아이들

혹한의 한국을 떠나 이웃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네팔 다일공동체를 찾은 젊은이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송실대임팩트 34기 팀입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고 여성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지 못하는 환경들이 드러납니다. 네팔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여성직업기술학교 이며 그 출발이 미싱교실입니다. 미싱교실에서는 가방과 교복을 만들고 있으며 여아에서 소녀로 여인으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대안생리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생리가 빈민가 소녀들에게는 매달 찾아오는 지옥의 시간들입니다. 대안생리대를 미싱교실에서 만들고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받게 되면 학교에 찾아가 사용설명과 함께 세탁 위생교육을 하고 다섯개씩 들어 있는 파우치를 나누어줍니다. 장차 어머니가 되어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될 여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용품들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미싱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네팔의 현실에서 이 미싱교실을 통한 기술 습득과 직업창업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에 큰 의미를 알고 송실대 임팩트 34기 팀에 500불 후원으로 70여명의 소녀들에게 대안생리대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밥퍼와, 호프스쿨, 유치원 교육봉사, 대안생리대 나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누하르 강변

가난한 마을에 큰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편,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로 세워지는 신두팔촉지역의 현장은 네팔 겨울의 끝에서 열기를 내며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풀 바하르르 따망 지부장님의 수고에 기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익교회 선교팀이 방문하여 철근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는 등 이곳에서 살게 될 어린 친구들을 품은 노동 속에 무겁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골 오지까지 오셔서 곳은 노동속에서도 이 고아원에서 살게 될 아이들을 위해 추운 겨울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많은 힘이 되어주신 홍익교회 선교팀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묵묵한 봉사의 감동을 마음 깊이 전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③ 라이온스 클럽 봉사팀 ④ 카투만두 라이온스클럽 회장님 썬드라 다할

이 겨울 네팔다일공동체를 찾아와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신 송실대임팩트34기 야호팀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현지 카투만두 라이온스클럽에서 따드라 따할 회장님외 회원들께서 방문하셔서 함께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전하며 네팔 현지에서도 이웃을 돌보며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

는 귀한 방문으로 마음이 더욱 풍성히 기쁨 가득으로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잊지않고 기도해주시는 한국의 많은 후원자님께서도 이 겨울 마음만은 더욱 따뜻하게 보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팔다일공동체 비전트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팔땅의 그대들을 만나러 갑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떤가요?
늘 사진으로만 보던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날짜 4월 17일~28일
내용 카투만두 밥퍼, 포카라 빵퍼 탐방,
봉사활동 및 히말라야 트랙킹
비용 260만원(변동될수 있음)
문의 02 2212 8004
국제협력실 천은영 실장



우간다 UGANDA

변창재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초등학교 7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우간다의 초등학교는 한국과 달리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시험을 PLE (Primary Leaving Examinations)라고 부릅니다. 시험을 마치고 입시에서 해방된 학생들은 시험 결과가 나오는 3개월 동안 학교 정규 수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며 다일공동체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 후에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가정의 일을 돕거나 노동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가사노동이나 외부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아동에게는 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갑자기 여유로운 시간들이 자칫 비행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의 경우 임신이 되거나 남학생의 경우 마약에 빠지거나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도 가정도 주변 사회도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초등학교나 학부모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지만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급식과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키티코, 키고 초등학교 7학년을 대상으로 밥퍼센터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난생처음 동물원도 가보고, 체육활동과 성경공부, 신앙 및 진로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학교 후배들을 위해 밥퍼 앞치마를 입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첫 발걸음을 댈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건전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인생관이 더욱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응원해 주세요^^

Our Children, Our Hope!



① 각자가 그린 본인 얼굴에 왁자지껄 박장대소, 난리가 났습니다



② 밥퍼가 최고야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바자회 수익금 전달과 밥퍼의 시작!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대부분이 기초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입니다. 방학이 되기 전 아동결연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하고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다녀 97명의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수년 전 에이즈로 돌아가시고 남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본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식당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마음 착한 누나. 남편은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고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이웃의 빨래를 하거나 밭 일을 도와 주면서 삶의 무게로 인해 이미 손톱은 모두 빠져버린 젊은 엄마. 말라리아로 인한 적혈구 변형의 유전병으로 혈액에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아 잦은 두통으로 시달리고 간 신장 등이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가는 sickle cell을 앓고 있는 소녀들.

원치 않은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는 97명의 아이들을 위해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에서 바자회 수익금으로 쌀, 설탕, 식용유, 과자를 담은 아주 멋진 성탄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전도회의 사랑에 감격한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오성욱 목사님과 여전도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을 넘어서 다일공동체 밥퍼 센터에서 지역결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밥퍼를 실시했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밥퍼에 필요한 대형 숟들과 주방도구들과 쌀과 콩,

토마토, 당근, 피망, 양파 등의 채소를 구입하였습니다.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는 밥 짓는데 필요한 장작 한 트럭을 보내 주셨고, 권용배 국방무관님 가정은 첫 번째 밥퍼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동결연 조사를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면서 특별히 일거리가 필요하고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엄마들 4명과 자립청소년 가구 누나 2명을 밥퍼 주방에서 함께 일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수차례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교육을 받고 호흡이 맞는 7학년과 중학생들이 적시적소에서 일당백의 자원봉사자로 활약 해주어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이 퍼지고 나누어지며 아이들의 입안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이 들었지만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제5기 다일호프클래스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 시작

2월 1일 40명의 새로운 아동들로 제5기 다일 호프클래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전에 부모님들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돌을 깨던지, 동네를 돌며 야채와 도넛을 팔던지, 다른 집에서 청소와 설거지를 하던지, 집안일과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동들 40명이 부모님들과 함께 5기 다일호프클래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기대반 호기심반으로 은데슈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아동들과 부모님들의 눈동자가 아주 초롱초롱 합니다.

그리고 첫 수업시간... 지금은 스와힐리어를 말만 할 수 있지만 오는 12월 졸업식 전에는 스와힐리어를 읽고 쓸 뿐만 아

니라 세자리 숫자까지 덧셈과 뺄셈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영어도 익히고, 태권도도 배울 것입니다.

제5기 다일 호프클래스 아동들 40명 중 33명이 아직 아동결연 후원자가 없는 아동들입니다. 이 아동들에게 교복, 학용품, 간식비와 식대, 병원 진료비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동들이 앞으로 아무런 염려없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속히 아동결연 후원자님들과 결연을 맺어야 합니다. 제5기 아동들 33명이 속히 아동결연 후원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① 제 5기 다일호프클래스 오리엔테이션



무싸 라마다니의 후원천사를 기다립니다

올해 14세인 무싸 라마다니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싸가 8살 때 채석장에서 일하시다 돌무더기가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싸는 집안 형편상 학교를 중퇴했는데 다일공동체의 도움으로 작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갑자기 무릎부터 발끝까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학교를 못가고 집에 누워있거나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의 도움으로 작년부터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몇 가지 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정확한 병의 원인과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싸가 한번 병원에 가려면 진료비와 약값을 포함해서 한화 약 10만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3차례에 걸친 검사에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은 그들이 추측하는 병이 아닐까 생각하며 마지막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위한 검사비와 5회에 걸친 약값으로 한화 약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선생님이 꿈인 무싸는 갑자기 집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싸가 어서 속히 걷게 되어 친구들과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장래의 소망인 선생님을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할 수 있도록 무싸의 병원비와 약값을 후원해주실 후원천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② 제5기 다일호프클래스 오리엔테이션 ③ 무싸 라마다니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미국 AMERIC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천사교회...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를 찾아서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막 10:45)

(막 10:45) 말씀처럼 나눔과 섬김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주다일공동체의 협력 천사교회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2009년에 창립이 된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안선홍 목사님은 미주7기 영성수련을 경험하신 벅님(피터님)으로 미주다일공동체와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으시며 작년부터는 미주다일공동체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천사교회로서 함께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① 섬기는 교회 안선홍 목사님

Q.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선교지가 있으신가요?

A. 현재 아마존, 파라과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마존에

서는 신학교를 개교하여 36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현지 교단 선교사와 협력하여 의료, 배식, 교회 학교 및 남미신학교가 시작이 되어 진 상황입니다.

Q. 교회 이름을 섬기는 교회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 현대사회의 신앙이 너무 개념론적, 관념론이 되는 등 종교 퍼포먼스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교회의 섬김이 교회 바깥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섬김'이란 말과 다르게 '섬기는'이란 뜻은 행함을 의미하는 동사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최우선은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기도로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라는 뜻은 최우선적으로는 '아틀란타를 섬기자'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는 '아틀란타에서 열방을 섬기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목표이며 전초기지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큼 열방을 향해 뻗어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교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과 대화의 통화를 통하여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지향하는 섬김의 방향과 다일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참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와 미주다일공동체가 한 방향 정렬되어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190기(미주 18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미주 서부순례



주강사 최일도 목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일영성수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찾기를 통해
새로워진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감격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순례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16일 출국
5월 17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순례
5월 18일 나파 지역 순례
5월 19일 몬트레이 순례
5월 20-24 아름다운 세상찾기 영적우주여행
5월 24-25 요세미티 국립공원 순례
5월 26일 타호 호수 순례
5월 27일 귀국

예상소요 경비 250-300만원
일정 및 경비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설곡산다일공동체 031-585-2004
김지훈 원장 010-3671-8014



다일공동체 단식기도수련 안내

목안리 다일공동체 '다일 평화의 마을(다평마)'에서는 2018년 2월부터 단식기도수련의 장을 엽니다. 생활단식과 함께 몸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전인치유적인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영혼육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을 정중히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목안리 다일공동체로 오십시오! 기독교 전통적인 기도수련과 함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드리며 동시에 깊은 영적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단식기도수련은 매주 개최됩니다.

주요 강사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
다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연수 대표
설곡산 다일공동체 원장	김지훈 목사
목안리 다일공동체 원장	김혜경 목사

문의

031 584 7478(목안리 다일 평화의마을)
010 8948 8271(목안리 다일공동체 김혜경 원장)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목안로 902번길 17-3
(다일 평화의마을)

제 36기 다일DTS훈련생을 모집 공고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 예배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나누며 섬기는 봉사생활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의 정신과 영성으로 세워질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습니다.

1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분들 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다일공동체의
해외사역지로(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 파송되어 선교사로도 헌신할 기회도 있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다양한 영성수련과 함께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다일천사병원에서의 노동기도, 목안리 DTS훈련원에서의 예배의 삶을 통해 훈련과정의 이루어집니다.

2018년 3월부터 개최될 예정이오니 전화 문의를 통해 지원의사를 전달하여 주시면
소정의 지원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자격

19세 이상 ~ 55세 미만

문의

031 584 7478(다일DTS훈련원)
010 8948 8271(다일DTS훈련원 원장 김혜경)

다일DTS훈련원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목안로 902번길 17-3
(다일 평화의마을)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
다일DTS훈련원 원장 김혜경 목사





대한민국 KOREA

최홍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언제나처럼 새벽부터 분주한 청량리의 밥퍼에 그날은 신기하게도 낯설지만 무언가 따뜻한 느낌의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방울 방울 맺혀진 것 같이 물방울이 묻어있던 떡상자에는 예쁜 아기의 숨결이 들리는 것처럼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첫돌을 기념하여 만드는 따뜻한 온기가 채 가지지 않은 돌 떡이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2016년 12월 30일에 태어난 '림하' 첫돌을 기념하여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께 대접하기 위해 멀리서 아이를 등에 업고 림하와 림하 엄마는 그렇게 밥퍼를 찾아 왔습니다.

아픈 첫 아이와 함께 견뎌낸 시간에 대한 감사와 용기를 내어 밥퍼의 문을 두드리게 된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림하엄마 이슬기님이 전하는 이야기

선&정혜영 부부가 아이의 돌 기념으로 밥퍼 나눔을 했다는 일화를 통해 밥퍼를 알고 있었고 막연하게 나도 엄마가 되면 아이에게 의미있는 돌 잔치(밥퍼 봉사)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아이를 조산했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재태기간도 다 채우지 못했고 이미 폐혈증 쇼크가 온 상태라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지만 힘들것 같다고 했지만 아이는 기적처럼 살았고 두 번의 수술을 거쳐 다른 아이들과 다름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게 해 준 병원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의 돌을 맞아 다른 환아의 치료를 위한 작은 기부를 했고 밥퍼 나눔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하나 고민했는데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이라 용기를 내어 전화를 드렸더니 작은 나눔도 기쁘게 받아주시어 아이의 돌 떡인 백설기 나눔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퍼에 가보니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라는 구호가 있어 망설였던 나를 일깨워 주었고, 많은 분들이 림하의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그 날 받았던 감동을 잊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용기 내어 나눌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사랑의 나눔을 통해 오히려 저희가 받게 되었던 감사의 마음과 행복을 늘 간직하고 림하를 더욱 사랑하며 건강하고 밝게 키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림하 엄마 이슬기 드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오병이어 광고

밥 한그릇의 나눔, 이웃을 행복하게 해요

며칠 전 신문에 쪽방에서 열흘 넘게 굶다시피 한 한 일용직 노동자가 쪽방내 공동주방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본 이웃 방 주인이 불을 끄러 나오자 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동아일보 2.6) 겨울철 일용직으로 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제대로 끼니를 잇지 못해 굶주림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욕하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웃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분노에 희생양이 된 같은 쪽방촌 이웃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찔렀던 이웃의 마음이 깊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죽 배가 고프고 그로 인해 너무나 깊은 분노와 좌절감에 될대로 되라. 누구든 죽여버리고 싶다는 몸부림을 쳤을까 하며 그의 마음을 애써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한 독자가 "그렇게 배고프면 무료 급식소라도 찾아가지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고 댓글을 달자 또다른 독자는 "무료 급식소가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멀어서 가지 못했을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끼의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밥퍼나눔운동본부에는 600여명의 배고픈 이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날마다 600명씩 청량리지역 뿐 아니라 먼길을 마다않고 추운 겨울 굶주림을 피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의 손길이 이 분들을 살리십니다. 매달 만원으로 매일 600명의 이웃들에게 추위를 이기는 따뜻한 한끼를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KOREA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① 밥퍼 클레먼트 코스 진행사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대학

이번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추진 계획'에 제안서를 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얼쇼리스 신부님이 한 노숙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노숙인은 '밥'이 아닌 '문화'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한 클레먼트코스는 참으로 따뜻한 교육입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통하여도 클레먼트코스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약 700~8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일공동체의 밥퍼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시와 문학을 강의하는 '클레먼트 코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한 어르신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중 한분은 자활을 시작하여 독서실에 일을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게 되어 협치형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일 문화대학'은 사회적 소외계층, 주민, 행정 사이의 협치를 통한 강좌 개설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 인문학 강좌를 통해 삶의 활력과 용기, 희망을 제공하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평생교육과 열린 학습 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뿐 아니라 문화대학의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여 가난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도성과 성찰 능력을 키워드리고자 합니다. 강사진도 다양합니다. 이번 3월 말이나 4월 초 진행하게 될 예정으로 스태프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대학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며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생의 활력을 되찾게 함으로써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나눔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최일도

- 현 다일공동체 대표
- 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 한일장신대학교 명예
- 신학 박사(Th.D.)
- 장로회신대학 신학학사
- 장로회신대학원 M.Div
- '밥퍼주는 시인 퍼주는 사랑' 저자



올바른 소통의
기술

최진봉

- 현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
- 미국 미네소타대학원
-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 미국 텍사스대학교 교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정호승

- 경희대학교 국문학 학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
-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작품의 저자



박상원의
삶과 연기

박상원

- 서울예술대학 연극학 학사
-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 MBC 18기 공채 탤런트
- 다일공동체 홍보대사
-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교수
- '모래시계', '내 딸 금사월' 등 많은 작
품 출연



제4차 산업
혁명시대 협업에
길이 있다

윤은기

- 한국현업진흥협회 회장
-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고려대학교 심리학 학사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학사
-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
- 대한민국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회
위원장



결국은 사람이다

김경집

- 서강대학교 영문과 학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
- 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수
- 2018년 전라남도 '올해의책'
- 비문학부문 선정
- '생각을 걷다', '인문학은 밥이다' 등
많은 작품의 저자



시인과의 만남

김연수

- 현 다일복지재단 상임대표
-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사
- 서강대 신학대학원 신학사 석사
- 계성여중, 신홍실고, 광장중학교
국어교사
- '아득한 별에 꽃씨 묻으며', '꽃심' 등
많은 작품의 저자



큰 나무만으론
산을 이룰 수
없네

홍순관

- 가수, 무대미술, 방송진행자 연출,
가수 활동
- 부산대학교예술대학 조소 전공
- 뉴욕링컨센터, 여의도KBS 아르코대
극장 등 단독공연
- 평화센터건립모금공연(춤추는평화),
동요(엄마나라이야기) 공연 중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홍보대사



밥 철학과
밥의 영성

이강학

-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 GTU기독교 영성 박사
-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 영성지도 슈퍼바이저 역임
-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교
실천신학 / 기독교 부교수



전쟁과 평화

박선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정책학박사
- 전 대통령실 언론2비서관
- 전 37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 당 영등포
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웰다잉을 위하여

김경호

- 전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 전 한남대학교 강사
- 전 대전신학대학교 강사
- 대전동안교회 목사
- 건양대학교 죽음학 강사



삶과 노래

하덕규

-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 추계예술대학교 회화과 학사
- '시인과 찬장'으로 데뷔
- '꽃을 주고간 사람', '한계령' 등
왕성한 음악활동



근자열(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조용근

- 현 세무법인인성성 회장
- 현 천안함재단 이사장
- 성균관대 상학과 명예졸업
- 현 석성장학회 회장
- 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
지원국 국장



예술로
승화된 삶

신중호

- 제1대 한국장애인문화예술 이사장
- 신시내티대학교 대학원 음악 석사
- 뉴욕시립대학교 브루클린칼리지
대학원
-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
- 서울아산교악단 음악감독



위대한
청춘 70년

유인택

- 현 동명예술국장 대표
- 서울대학교 제약학 학사
-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 국장
- 제3회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회장
- 군장대학 뮤지컬보컬방송 연기계열
석좌교수



자서전 쓰기

임중옥

-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지도교수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주임 교수
- 국제신학대학원외래교수
- 사회복지대학원 가족학과 지도교수

십자가의 길로 떠나는 하루 순례

십자가의 길 묵상은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기도수련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사건, 부활이 각 장면별로 구성된 순례기도입니다.

각 장면 안에 묵상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느껴보고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일공동체 십자가의 길은 성서를 기반으로 가장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 14처로 구성하였고 박창용 작가님의 1년이 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찾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삶 속에서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진지알아차리기

다일공동체에서는 식사시간이 없습니다.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단순히 밥을 먹어 치우는 "식(食) + 사(事)"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진지하게 우리를 위해 자기자신을 내어준 진지들을 만나고 그 진지들과 대화하며 진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인의 수고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진지알아차리기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꽃차와 함께하는 영적상담

설곡산 다일공동체는 사시사철 꽃이 피는 꽃동산입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이 꽃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따고 닦고 말리고 잘 담아서 많은 이들이 이 꽃을 오래오래 즐길 수 있도록 꽃차를 대접해드립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따스한 차를 함께 나누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다일공동체 사역 소개

설곡산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로 순례를 오신 분들은 누구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오신 분들과 따로 예배드리길 원하시면 갈보리 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연락처와 찾아오시는 길

설곡산 십자가의 길로 떠나는 하루 순례는 하루 동안 기독교 전통 묵상 수련인 십자가의 길과 예배, 진지알아차리기와 꽃차 나눔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방문을 원하시는 분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율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설곡산 다일공동체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퍼나눔운동본부



광주은행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 새벽을 달려 광주은행 행장님과 직원 50분이 밥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밥퍼 일일 배식비는 물론, 간식으로 가래떡까지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배식 봉사와 설거지, 잔반 처리, 마무리 청소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서울로는 시집오기 싫다면서도 봉사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신 광주은행장님과 지점장님, 직원분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국제고등학교 김승민 학생

서울국제고등학교 3학년인 김승민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일 때 친구들과 처음 밥퍼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어르신들께서 "고마워 학생!", "덕분에 잘먹었어요~"라고 인사해주시는 어르신들을 잊지 못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는 학생입니다. 어떤일도 불평없이 웃으며 척척 해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날에 선뜻와주어 일당백으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어르신들을 섬기러 오는 김승민 학생! 멋진 성인이 되어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밥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008년 처음 시작하여, 매년 따뜻한 손길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내복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경아독하며 휴가를 내서까지 참석하신 문건화 학생(PMBA '16)은 "급식 봉사 활동은 처음이었는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행사의 취지와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식사 한 끼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몽클한 순간이었고, "다음에도 꼭 참석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주셨습니다. 모두 성실히 활동해주셨고, 마지막 어르신까지 정성껏 모셔주셨습니다. 2018년에도 따뜻한 나눔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우간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분들

밥퍼가 시작되고 한국인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매주 토요일 구슬땀을 흘리며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바나나, 비스킷을 가지고 와주신 권용배 무관님과 정수남 사모님(자녀: 반석, 의인, 진주, 보배), 배종호 님과 이연수 님, 이정웅+석미자 선교사님, 류완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팔



와우리 교회 청년 봉사팀

네팔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신 와우리 교회 봉사팀은 젊은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처럼 와~ 우리 교회 청년교회라고 쓰신 이름 그대로 젊음을 느낄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와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송촌장로교회 봉사팀

귀한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먼 네팔까지 방문해주셨습니다. 식자재 준비부터 배식까지 모든 일들을 젊음의 열정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정성이 들어간 진지를 대접하신 송촌교회 청년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에서의 시간이 송촌교회 봉사팀 모든 분들께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작은천국



배화여대 봉사 동아리 How팀

배화여자대학교 봉사 동아리 HOW팀 학생들이 올해도 다일작은천국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항상 바쁘게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 오는 배화여자대학교 봉사 동아리 HOW팀 김연희 봉사 동아리 대표가 다일작은천국을 위해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봉사를 와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입소자 분들을 위해 과일과 간식 생활용품까지 구입해왔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본인 챙기는 것도 힘들텐데 입소자분들까지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018년에도 다일작은천국에 자주 봉사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배화여대 How 팀 학생들이 최고야!



소망교회 이미용 봉사팀

2017년 한해 동안 열심히 이미용 봉사를 해주셨던 소망교회 이미용팀이 2018년에도 어김없이 봉사를 오셨습니다.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분들의 이미용을 도와주시러 바쁘신 와중에도 한달에 한번 꼭 시간을 내시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오십니다. 오셔서 머리 뿐만이 아니라 눈썹정리와 면도까지 도와주시니 평상시에도 입소자분들이 언제 이미용 봉사가 오시냐고 하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십니다. 또 오셔서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해주시니 소망교회 이미용 봉사팀이 가고 나면 입소자 분들이 항상 행복하십니다. 항상 다일작은천국 입소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망교회 이미용 봉사팀!



경희고등학교 자원봉사팀

경희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희고등학교는 병설 자율형사립고로서 56년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세계적인 명문사학입니다. 남학생들로 이루어져 씩씩하게 봉사는 경희고등학교 자원봉사팀은 지하실을 청소하러 내려갔는데요. 구석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 다 제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끝날 때도 다시 봉사 오고 싶다면 다음에는 다른 봉사를 또 하고 싶다는 경희고 학생에 말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Welcome to Dail Little Heaven!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길 화이팅!

캄보디아 (씨엠립 본원)



다니엘 아카데미 (씨엠립)

지난 12월, 총 5일간의 일정으로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시어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대로 이루어진 다니엘 아카데미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해온 다양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과 밥퍼, 빵퍼 봉사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행복한 미소로 섬겨주었습니다. '봉사는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가슴 뜨거운 후기도 함께 남겨주신 다니엘 아카데미 모든 가족여러분들께 두 손모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어곤 뽀레야 예수!

천사의 손 (씨엠립)

작년에 이어 천사의 손 가족여러분들께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수 아이들의 작은 발을 어루만지며, 예쁜 신발도 정성껏 만들어 주시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 간식봉사 까지 열심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프놈그라움, 스톡부억, 오마누억과 쯡크니어 수상마을까지, 캄보디아다일공동체의 모든 사역지를 방문하시는 땀방울 가득한 일정 속에서도 감사함과 사랑을 배우신다며 앞으로도 다시 만나 뵈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사의 손 최고야! 어곤뽀레야 예수!

캄보디아 (프놈펜 지부)



한국 교통대학교

새해부터 반갑게 한국 교통대학교 24분의 대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지부로 방문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밥퍼와 빵퍼를 도와주시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위생봉사를 참여 하시고 가셨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과 문화인 부채춤 공연을 해주셔서 부채춤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놀라워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찾아와 후원과 봉사로 함께해 주신 교통대학교 학생들과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꿈사랑 배움터 15기 & 프놈펜 좋은학교

1월13일에 한국에서 오신 꿈사랑 배움터15기와 함께 프놈펜 좋은학교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를 1년만에 방문하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사랑을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봉사에 참여하시고 가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좋은 본모습을 보여주신 꿈사랑 배움터 & 프놈펜 좋은학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하 교회

3년 째 캄보디아 선교로 오시는 학하교회 비전 트립팀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거리낌없이 대해주시는 봉사자분들 너무 보기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장난감과 수건을 준비해 오셔서 위생봉사도 놀이봉사도 다양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봉사에 참여해 주신 학하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하교회가 최고야~^^

다일공동체는 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힘으로 운영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02-2212-8004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
 회원명단
 2017. 12 ~
 2018. 1

- (주)광주은행, (주)지투엘이케팅, (주)한국리서치, (주)행복한바오밥, [주]흥림, BenStella, RICHARD, YK무역,
- 강민경, 강봉호, 강신혜, 강용순, 강주은, 고경택, 고메리, 고용호, 공영미, 박영순, 박정숙, 박태진, 구본화, 권민철,
- 권분자, 권오중, 권현경, 급식지원, 김경중, 김동완, 김동우, 김리희, 김명신, 김명영, 김무영, 김민욱, 김병윤, 김병희,
- 김상형, 김선화, 김성렬, 김성은, 김성진, 김소은, 김수진, 김승희, 김신일, 김연수, 김영래, 김영부, 김영신, 김영옥,
- 김왕수, 김용남, 김윤선, 김윤수, 김윤아, 김윤지, 김은자, 김은정, 김일상, 김정기, 김정숙, 김종수, 김주희, 김지홍,
- 김진숙, 김철중, 김학천, 김한빛, 김향진, 김향숙, 김향숙, 김현식, 김형곤, 김형곤, 김형윤, 김희은, 남규희, 남은경,
- 남지선, 다일패밀리, 다일후원(박), 대한예수교장로연합, 대한해운(주), 도권사, 도춘자, 동북주나, 류은순, 리나,
- 마태식, 머릿돌선교회, 메리크리스마스, 문민오, 문신화지연, 문영선, 문윤희, 민경년, 민우홍, 박가혜, 박경미,
- 박동렬, 박상임, 박새롬, 박석환, 박성규, 박소연, 박소원, 박수훈, 박영희, 박원용, 박재홍, 박정화, 박종범, 박중호,
- 박진숙, 박찬희, 박효선, 배지연, 백경숙, 백기호, 백승자, 백중희, 변정희, 산들종합유통, 산촌, 서문태욱, 서영란,
- 석미란, 선경옥, 성담교회김성균, 성성진, 성충현, 세진2여전도회, 손혜정, 송명준, 송세윤, 송영돈, 송유형, 송호숙,
- 순복음예수생명교회, 송인, 신기모, 신길형, 신소영, 신일교회남선교회, 신정남, 신준식, 신현희, 신형아, 심남숙,
- 아주산업(주), 안산중앙교회, 안성민, 안수일, 안영창, 안영철, 안윤자, 안인환, 양기웅, 양미숙, 양혜진, 오민정,
- 오을미, 오창용, 오도규청량리점, 오호석, 오희승, 온영범, 왕영숙, 우리은행회룡지점, 우미숙, 유근호, 유병재,
- 유승훈, 유시은, 유육녀, 유창순, 유혜숙, 윤석숙, 영란, 윤영미, 의료지원, 이경숙, 이경숙, 이광훈, 이근정, 이금자,
- 이득해, 이레비앤디 주식회사, 이미숙, 이민자, 이서름, 이상분, 이서연, 이서원, 이서하, 이소연, 이수경, 이수미,
- 이수민, 이수영, 이수자, 이승태, 이시은, 이영미, 이영미, 이원신, 이유란, 이윤정, 이은석,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 이을영, 이인영, 이장오, 이정희, 이주노, 이진숙, 이진숙, 이현아, 이현희, 이혜정, 이호세, 임경선, 임난주, 임양희,
- 임이버인후과의원, 임현경, 장동교회, 장미선, 장욱재, 장일봉, 장혜련, 전경숙, 전규민, 전병희, 정경숙, 정도영,
- 정수용, 정순옥, 정연희, 정문광, 정종국, 정주연, 정찬예, 정하영, 정현숙, 정현아, 조경연, 조민숙, 조서윤, 조서윤,
- 조성우, 조영자, 조해주, 주나영생, 주나의일동, 주사모, 주선아, 주성식, 주식회사원스이엔씨, 지경숙, 차두삼,
- 채귀영, 채정화, 채공미, 최경심, 최국현, 최용, 최명신, 최미곤, 최미숙, 최민, 최상갑, 최세김유노윤, 최순남, 최순용,
- 최영미, 최용석, 최유리, 최윤혜, 최재근, 최재영, 최진희, 최한결, 최현서, 충만한청년, 커브스, 코리아스윙댄스106기,
- 텀나디자인, 포카리뽕피, 히태자, 한국교총,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금자, 한미아용여전도회, 한병오, 한중훈,
- 허형동, 홍유정, 홍의남, 홍창오, 황미숙, 황정호



밥퍼나눔
 운동본부
 신규후원 내역
 2017. 12. 17 ~
 2018. 2. 10

- 쌀 10kg (3만원)
- 박승하, 박소원, 김정심
- 후원물품
- 농협전농지점(쌀), 무명(검은깨, 검은콩),
- 이정남(쌀), 다이소(햇팍), 운호미트(돼지고기)

다일천사병원
 2017. 12. 17 ~
 2018. 2. 10

- 영일제약의약품,
- 이소희님

미국

2017. 12. 17 ~ 2018. 2. 10

구미영, 김영애,
신필수, 오예숙,
정화선,
James Kim,
John Swort

중국

2017. 12. 17 ~ 2018. 2. 10

후원금

김성재[Obey & Praise],
김학용,
다일졸업생 모임

후원물품

림예화[훈춘시 아동복지원 점심,
저녁 2회 외식지원]

우간다

2017. 12. 17 ~ 2018. 2. 10

후원금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이홍희, 임미성

후원물품

권용배[버디나, 비스킷],
배종호[비스킷, 막대사탕]

캄보디아

2017. 12. 16 ~ 2018. 2. 15

후원자

J.K Golf Academy,
THC 투어, 교통대학교,
꿈 사랑배움터 15기 비전트립,
대륙정공, 리일 & 조홍광,
목포초대교회 청소년부, 무명,
사이공스타, 삼산교회,
상황나라, 서천 성결교회,
수원유신고등학교,
썬투어클럽 임윤기, 아이체형,
양코르신화, 양주예향교회,
인제대학교 제기기 해외봉사단,
썬한들 이해인, 썬한들 정민호,
썬한들 최이범, 천사의 손,
카도, 프농펜 제일교회,
프농펜 좋은학교, 학하감리교회

후원물품

[식료품]
대교 퓨처키즈, 아이체형,
양주 예향교회, 영주고등학교,
조남일, 충주시청,
프농펜 제일교회
[의류 및 신발]
리일&조홍광, 썬투어,
천사의 손, 썬한들
[학용품]
무명, 아이체형,
양주예향교회, 썬투어,
충주시청, 썬한들
[집회]
사이공스타, 천사의 손,
학하 감리교회
[의약품]
천사의 손

네팔

2017. 12. 17 ~ 2018. 2. 10

의정부평안교회,
여천제일교회,
김회권,
카트만두라이온스클럽,
백관기,
송촌장로교회,
와우리교회

베트남

2017. 12. 17 ~ 2018. 2. 10

POSCO DAEWOO INTERNATIONAL,
A PLUS, LOTTERIA,
NAHAL, VEGAS,
권민혁님, 닥터카,
대장금,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아산상선, 오희승님,
참조은광성교회,
호치민중앙교회

탄자니아

2017. 12. 17 ~ 2018. 2. 10

이효은,
서울가든,
최병택 & 이종례,
이귀례

후원 안내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 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곡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061119794
계좌번호: 1510014622
예금주: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Bank of america
예금주: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061000052
은행주소: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주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후원계좌

은행이름: Td Canada Trust Bank
은행번호: 5222930
계좌번호: 13542
Inst. No: 004
OM M6N 4x7, CANADA
예금주: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후원계좌

예금주: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예금주: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다일복지재단 후원 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 | | |
|---|---|---|
| <input type="checkbox"/>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1:1 해외아동 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input type="checkbox"/> 쌀 10kg
월 3만원 _____ 구좌 |
| <input type="checkbox"/>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_____ 원 |

일시후원

- | | |
|---|---|
|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 <input type="checkbox"/>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원 |

후원회원 정보

이름	주민등록 앞 번호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동의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e-mail 수신 동의
주소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수신 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 번호	(남 / 여)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6층 후원관리실 fax 02-2247-8004  다일공동체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다일공동체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 📍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 📍 1247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 ☎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 📍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17-3
- ☎ 031-584-7478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 📍 St N'63 Tour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 📍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e Penh, City, CAMBODIA
- ☎ +855-17-764-440

중국 다일공동체

- 📍 133300 中国吉林省琿春市西城名苑53栋1单元601, 602
- ☎ +86-433-753-8004

우간다 다일공동체

- 📍 P.O Box 85 Kisubi, UGANDA
- ☎ Tel. +256-771-072-382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 📍 Manoha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 ☎ +977-98494-58330
+977-98413-84069

포카라 지부

- 📍 9 Shivatol Buspark Pokhara Kaski, NEPAL
- ☎ +977-98607-76685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 ☎ +63-916-517-5892

까비떼 지부

- 📍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 1 Dasmarinas, Cavite 4114, PHILIPINES
- ☎ +63-927-560-7346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 ☎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 📍 21 đường Mỹ Giang 2B, Khu phố Mỹ Giang 2,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 📍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 ☎ +1-770-813-0899
(Fax) +1-770-813-0133
- 🏠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 📍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 +1-416-824-4831

아름다운 세상찾기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4박 5일)

191기/ 7월 9일-13일
192기/ 7월 30일-8월3일
193기/ 10월 22일-26일
194기/ 12월 10일-14일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4박 5일)

51기/7월 23일-27일
52기/8월 13일-17일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5박 6일)

26기/7월16일-21일
27기/8월6일-11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2018년 미국 북가주(샌프란시스코/몬트레이) 다일영성수련 아름다운 세상찾기

일정 190기(미주)/ 5월 20일-24일 **문의** 김고운 미주다일공동체 원장 1-770-813-0899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단체사용신청 및 개인피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031-585-6478, 031-585-2004, 010-3671-8014

홈페이지 sg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네비게이션으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에 스타렉스가 출발합니다.
탐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